

트럼프 2기 출범 및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

김영삼 수석연구원, 경제정책연구센터 (youngsamkim@posri.re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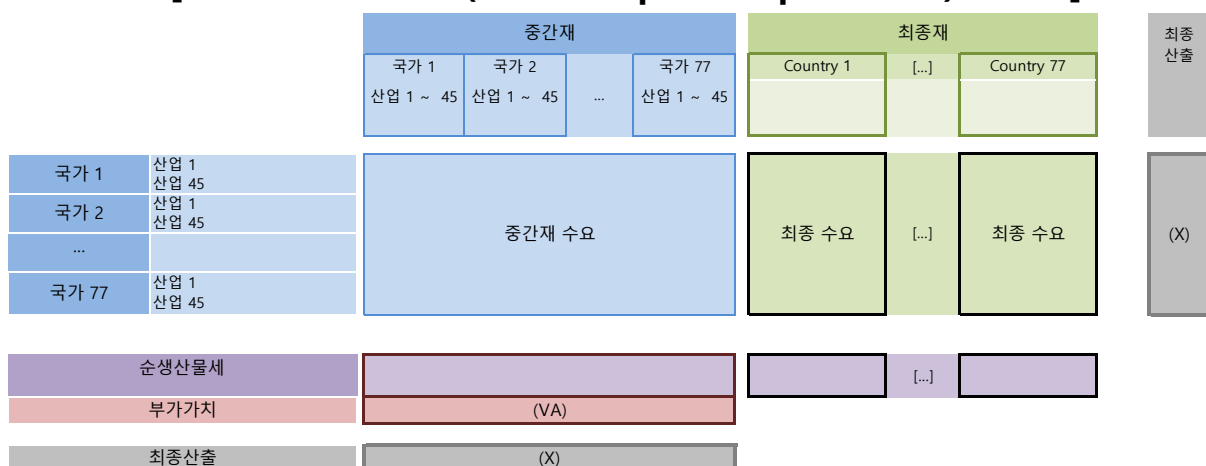
Summary

-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점증하고 있음. 보호무역정책이 실제 교역 위축으로 연결될 경우 국가별·산업별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
-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, 세계 교역이 10% 감소하면 세계 GDP는 2.3% 급감하고 한국 GDP도 3.4% 감소하는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산업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에서는 유통업과 금융업이, 제조업에서는 IT, 화학, 기계장비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
- 트럼프發 무역분쟁 확산 시 국내경제 및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며, 여건 악화에 대비해 비가격 경쟁력 확보 등 중기적 활로의 모색이 필요

1.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점증. 글로벌 교역 위축 시, 국가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

- '25.4.3.에 미국 정부는 중국에 보편 20%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, 캐나다·멕시코에 대해서도 25% 관세를 부과할 예정으로, '18~'19년 재임 당시보다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관세 폭탄을 예고
 - 미 상부부는 국가별 관세/비관세 조치를 검토 후 '상호관세' 부과 방안을 수립할 계획으로, 보호무역 정책의 대상을 중국을 넘어 글로벌로 확대할 전망
 - 중국과 유럽 등은 초기 트럼프 정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하겠으나, 미국의 공세가 이어질 경우 강대강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심화될 우려
- 이에 국제산업연관표의 국가 간 중간재/최종재 흐름을 활용하여, 미-중 및 글로벌 교역감소가 현실화되면 글로벌 성장(GDP)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함
 - 교역 위축으로 인한 경제성장 영향은 국가 및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특히 한국의 경우 대외의존도('24년 85%)가 높아 충격의 강도가 타 국가 대비 클 가능성이 높음
 - 또한, 중국이 글로벌 IT 및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/소비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, 교역 위축으로 중국 수요가 악화될 경우 제조업의 둔화 정도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

[국제산업연관표(Global Input-Output Table) 구조]



주 : 세계 주요 및 기타를 포함하여 77개 국가, 45개 산업 등으로 구성
출처 : OECD

2. 무역분쟁에 따른 시나리오별 세계 GDP 감소 분석

- (미-중 충돌 시나리오) 미국이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맞대응하여 미중 간 교역액이 20% 감소할 경우, 세계 GDP는 0.11% 하락하고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의 GDP는 각각 0.33%, 0.16% 축소
 - 미국과 중국의 교역 감소는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나, 수출입 연쇄관계로 인근의 한국, 일본, 대만, 캐나다, 멕시코 등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
 - 특히, 한국은 중국과 미국 양국과 교역 비중이 매우 높아 미-중 무역분쟁에 따른 영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임. 미-중 교역 20% 감소 시 한국 GDP는 U\$10억 가량 감소하고, GDP는 0.07% 축소될 것으로 전망
 - '24년 기준, 한국의 對중국 수출 비중은 19.5%이며, 對미국 수출 비중도 18.7%로 매우 높아, 한국 경제는 중국 및 미국의 수요 변화에 매우 민감

[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 20% 감소 시 GDP 감소 영향 분석 결과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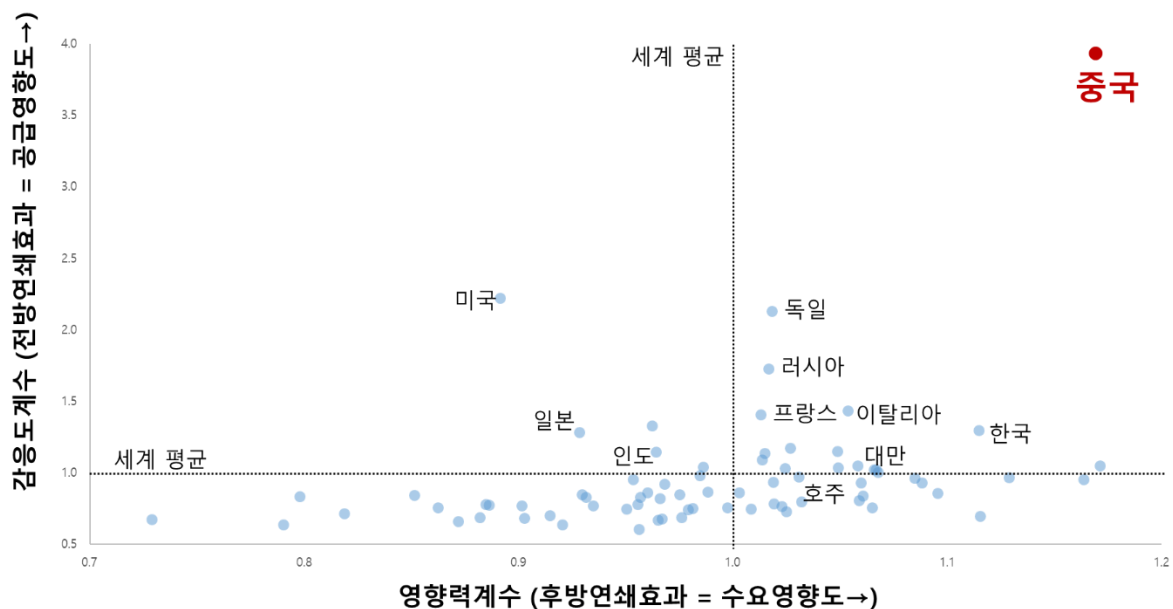
순위	국가	GDP 감소금액 (U\$백만)	GDP 감소 비중
1	중국	△47,310	△0.33%
2	미국	△32,643	△0.16%
3	일본	△1,052	△0.02%
4	한국	△1,016	△0.07%
5	대만	△894	△0.14%
6	호주	△561	△0.04%
7	독일	△527	△0.01%
8	캐나다	△385	△0.02%
9	멕시코	△310	△0.03%
10	러시아	△268	△0.02%
	세계	△90,172	△0.11%

분석 : 포스코경영연구원

- (보호무역주의 확산 시나리오) 세계 전체 교역이 10% 감소하면 세계 GDP는 2.3% 급감. 중국과 미국은 각각 GDP가 1.8%, 1.1% 감소하고 한국 GDP는 3.4% 감소 충격이 발생

- 트럼프 정부가 중국뿐만 아니라 멕시코, 캐나다, 유럽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 실시가 예상됨에 따라, 이 경우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- 이때 중국은 유럽, 아시아 등에 밀어내기 수출로 대미 수출 감소폭을 보전하려고 할 것이며, 이는 미국외 교역 대상국의 보호주의 흐름을 강화하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음
- 국가별 전후방연쇄효과를 분석해 보면, 중국은 글로벌 수요 및 공급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음. 이 압도적인 공급 능력을 활용해, 다른 국가로 수출을 확대하여 미-중 무역분쟁의 영향을 해소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음

[세계 주요국의 전후방연쇄효과 분석]



분석 : 포스코경영연구원

- 트럼프 정부가 공세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상대국들이 맞대응하여 글로벌 교역액이 10% 감소할 경우(세계 모든 국가들의 중간재 및 최종재 교역의 10% 감소)를 가정하여, 산업연관분석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추정
- 세계 경제 전체 GDP가 2.3%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,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시의 파급력이 미-중 양국 간 무역분쟁 시의 파급력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
- 글로벌 교역 위축의 영향력을 국가별로 살펴보면, 중국을 제외한 미국, 독일, 일본, 영국, 프랑스 등 선진국 GDP 감소 규모가 인도, 러시아 등의 신흥국 경제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
- 한국도 세계 교역 위축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됨. 세계 교역 위축에 따른

한국의 GDP 감소금액 순위는 상위 7위인데, 이는 경제 규모('23년 기준 세계 12위)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GDP 감소 비중도 3.38%에 달할 것으로 분석

- '24년,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.0%이고 '08년 금융위기 이후 평균 2.9%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,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세계 교역이 10% 감소할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

[세계 교역 10% 감소 시 GDP 감소 영향 분석 결과]

순위	국가	GDP 감소금액 (U\$백만)	GDP 감소 비중
1	중국	△257,435	△1.81%
2	미국	△222,642	△1.08%
3	독일	△132,013	△3.63%
4	일본	△84,979	△1.77%
5	영국	△69,602	△2.75%
6	프랑스	△62,554	△2.56%
7	한국	△52,605	△3.38%
8	이탈리아	△50,942	△2.87%
9	인도	△49,880	△1.94%
10	러시아	△45,773	△3.33%
	세계	△1,899,959	△2.32%

분석 : 포스코경영연구원

3.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면, 제조업에서는 IT, 화학, 기계장비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

-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직접적으로는 유통업과 결제대금 감소로 인해 금융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
- 미-중 무역충돌 시나리오(미-중 교역 20% 감소)에서는 특히 컴퓨터/전자/광학기기 등 IT제품, 화학, 농림어업, 기계장비 산업에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
- 보호무역주의 확산 시나리오(글로벌 교역 10% 감소)에서도 미-중 교역 위축 시와 산업별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남
 - 한편, 교역 위축 충격이 전 산업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과 연쇄 관계에 있는 '광업', '사업지원서비스' 등이 높은 순위에 오른 것이 특징

[미-중국 교역 20% 감소 시(좌), 글로벌 교역 10% 감소 시(우) 산업별 영향 분석]

순위	산업	GDP 감소금액 (U\$백만)	순위	산업	GDP 감소금액 (U\$백만)
1	도소매	△14,379	1	도소매	△298,075
2	컴퓨터/전자/광학기기	△10,377	2	광업	△131,218
3	전문/과학/기술서비스	△5,101	3	전문/과학/기술서비스	△130,921
4	금융보험	△4,762	4	금융보험	△126,188
5	화학	△3,995	5	사업지원서비스	△100,157
6	농림어업	△3,729	6	컴퓨터/전자/광학기기	△89,727
7	기계장비	△3,108	7	화학	△67,141
8	1 차금속	△2,780	8	컴퓨터프로그래밍 등 IT 서비스	△64,699
9	육상운송	△2,773	9	농림어업	△60,709
10	부동산업	△2,741	10	육상운송	△60,596

분석 : 포스코경영연구원

4. 무역분쟁 확산 시 국내경제 및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이 불가피하므로, 비가격 경쟁력 확보 등 중기적 활로 모 색이 필요

- 한국 경제는 수출 비중이 45%(‘24년 명목 GDP 기준)로 대외 불안 및 교역 위축에 매우 민감한 구조라서,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다른 국가 대비 클 것으로 판단
- 특히, 미국과의 갈등 심화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, 제조업은 수요 부진뿐만 아니라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확대로 어려움이 더욱 커질 전망
- 중국의 높은 공급능력을 감안하면 제조업에서 가격을 통한 경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, 결국 품질 및 기술 등 비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기적 차원에서 활로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
- 다만, 트럼프 공약의 실시 가능성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,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[참고 문헌]

- OECD, "Inter-Country Input-Output tables",
<https://www.oecd.org/en/data/datasets/inter-country-input-output-tables.html>